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광주호 반경 500m 내에 지정된 식영정·소쇄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훼손이 우려된다. 관광객들이 불별더위를 피해 광주호 인근 호수생태공원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재청, 광주호 독높이기 강력 제동

“식영정·천연기념물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침수 우려”
“공사강행 땀 고발할 것” 작년 이어 불허 통보...중단 위기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에 대해 "강행 시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피하며 선 굵기를 하고 있는 새 정부 방침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관련기사 3면>
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신청한 '광주호 독높이기'사업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식영정·총효동 왕버들)에 대해 최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불허'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같은 사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불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에 따라 만수위가 1.1m 가량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영정(명승 제57호)과 왕버들나무(천연기념물 제539호)를 포함한 반경 500m에 지정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이다.
독높이기 공사로 총 저수량이 기존 1736만m³에서 2325만m³로 늘어나면 홍수 예방 및 연간 556만m³ 가량의 생태유지수 공급이 가능하게 돼 인근 지역 환경 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독높이기 사업으로 만수위가 높아지면 식영정을 지나는 지방도 887호선 일부 구간 침수 우려가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도로를 넓히게 되면 식영정 주변 자연 경관 훼손, 왕버들나무 침수·유실 등도 불가피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기존 25.5m인 독을 27.1m로 1.6m 올리는 사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주민들도 독 높이

기 사업으로 가사·시가 문화권 내 경관·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문화재청은 한발 더 나아가 "만일 농어촌공사가 독높이기 사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아예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사업 추진 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두 부처간 갈등으로 지난해 착공한 독높이기 사업은 제방 덧씌우기 공사만 진행되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농어촌공사가 독높이기 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했던 환벽당 인근 '총효교' 확장(길이 30m→51.2m)공사와 인근 공원·주차장 건설도 이뤄질 지 미지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독높이기 사업은 물고기를 키우는 것으로 수문 개방 등을 통해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면서 "문화재청과의 이견을 조율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 062-226-0001

잘나가는 광주 수출 자동차·반도체가 효자

6월 수출액, 전국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증가
취업자 증가율 월 3%...6개월 연속 전국 1위

광주시의 지난 6월 수출액(전년 동월 대비)이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율도 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는 엔저와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전국적인 수출하락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일 광주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9400만달러) 증가한 12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 전국 특·광역시 수출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		2012	
	6월	상반기	6월	상반기
울산	7,380	46,005	8,611	49,439
서울	4,707	29,832	4,910	28,598
인천	2,332	13,726	2,412	13,702
광주	1,278	7,898	1,184	6,985
부산	1,032	6,570	1,169	6,879
대구	560	3,407	563	3,451
대전	297	1,906	334	2,227

국내 최대 수출 도시인 울산은 전년 동월보다 12억3100만달러(-14.3%)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 2억300만달러(-4.1%), 부산 1억3700만달러(-11.7%), 인천 8000만달러(-3.3%), 대전 3700만달러(-11.1%), 대구 300만달러(-0.5%)가 줄었다.
광주는 또 올 상반기(1~6월) 누적 수출액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3.1%(9억1300만달러)가 증가한 78억9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은 각각 4.3%와 0.2% 증가

하는 데 그쳤다. 대전(-14.4%)을 비롯한 울산(-6.9%), 부산(-4.5%), 대구(-1.3%) 등은 감소했다.
광주의 수출실적 향상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의 수출 호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의 반도체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 단축과 소형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카메라 모듈·전자집적회로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10억7400만달러) 대비 101.1%가 증가한 21억36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분야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과

쏘울, 카렌스 등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RV차량의 인기를 타고 판매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보다 5.2%(1억4000만달러) 증가한 28억27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출실적 향상 등에 힘입어 광주시의 취업자 증가율도 전국 특·광역시 중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1월 4.6%, 2월 2.2%, 3월 2.3%, 4월 2.8%, 5월 2.8%, 6월 2.9% 등 평균 3%를 기록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증가율인 1%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취업의 질을 결정하는 종사자 직업별 취업자수도 지난해 대비 상용(1년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는 2만6000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만3000명이 감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로 재편되고 있다.
광주시 박원원 수출입 동향 담당은 "세계적으로 엔저와 철강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향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박대통령 "원내대표 포함 5자 회담 열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4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윗 분의 뜻을 받들어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 드리겠다"면서 "각종 국정현안이 원내에 닿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던 새누리당은 5자 회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 파행 이후 빚어진 정국 경색이 풀리기를 기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안했으나 (여야가) 준비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구체적 의제

는 추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견을 좀 모아보자"며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대표가 먼저 회담을 제의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찬성 의견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넉넉함, 여유로움, 신선함 -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이
귀하의 품위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 하절기(8~9월) 그린피 할인 이벤트 실시
- 예약전화 : 061-320-7700 · 7777

